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 조선로동당 제2차 대표자회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55(1966)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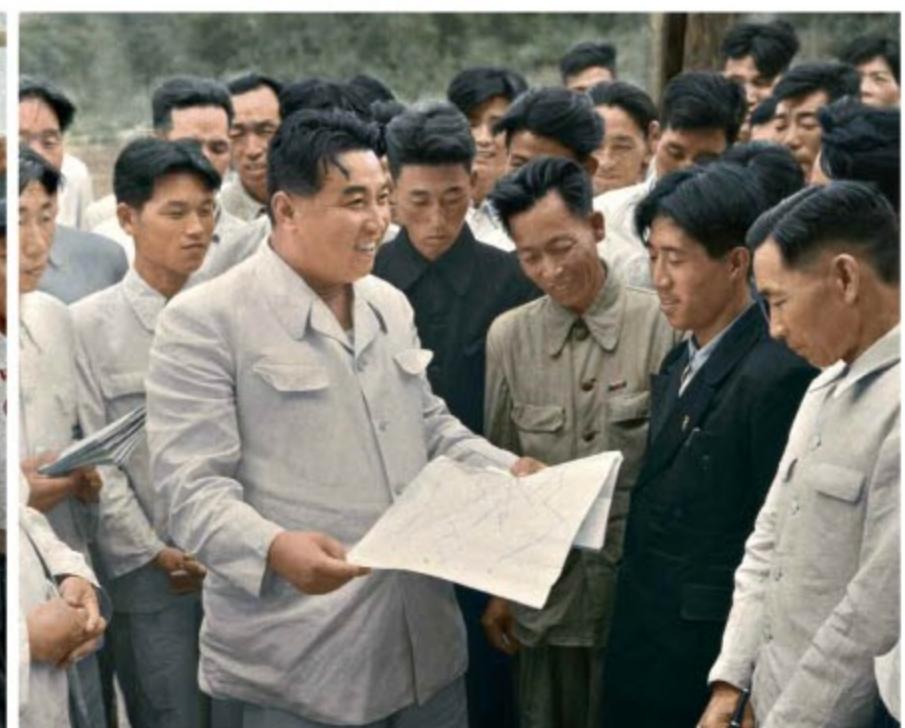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 참가자들의 열렬한 환영에
답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53(1964)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42(1953)년 8월



해주-하성사이 철길공사장을 찾으시여 청년건설자들을 고무격려해
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47(1958)년 6월



황해제철소 노동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48(1959)년 9월



2. 8비날론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50(1961)년 10월



강서군 청산리당총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49(1960)년 2월



개천군 외서협동농장 녀성뜨락또르운전수를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62(1973)년 11월



룡성기계공장 당위원회 확대회의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56(1967)년 6월



희천공작기계공장을 찾으시여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지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60(1971)년 2월



조선로동당 자강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63(1974)년 11월

우리 당의 백승의 역사와 전통을 만대에 빛내여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천만의 심장속에

각지당조직들에서

우리 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일흔돌기의 년들이 새겨지고 있다. 뜻깊은 당창건 기념일을 맞으며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우리 당의 창건과 그 강회발전에 쌓아올린 신세를 대하는 수령님들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시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리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역사는 당의 창건자이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여 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니다.』

우리 당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시으로 강회발전시켜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위치한 수령님들의 물질과 정신력을 당건설업과 업적을 깊이 새겨주시고 그것을 끌어내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우리 당의 불멸의 혁명전통이 아로새겨져 있는 혁명박물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찬양과 찬사를 활발히 조직진행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역사가 어떻게 억세게 뿌려내리게 되었는가를 더욱 깊이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성, 중앙군당당조직들에서는 혁명사적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찬양과 찬사를 활발히 조직진행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성을 깊이 새기도록 하였다.

온성군당위원회에서는 아래 단위 당조직들에서 웨해산혁명박물관, 두루봉혁명사적지를 비롯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대한 달시와 찬사를 계획적으로 조직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통하여 금, 향일의 나날 수령님들의 현지 교시 판들에게 대한 해설강의를 실시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진행되는 것을 다시금 깊이 새기게 되었다.

온성군당위원회에서는 아래 단위 당조직들에서는 웨해산혁명박물관, 두루봉혁명사적지를 비롯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대한 달시와 찬사를 계획적으로 조직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통하여 금, 향일의 나날 수령님들의 현지 교시 판들에게 대한 해설강의를 실시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진행되는 것을 다시금 깊이 새기게 되었다.

고원군당위원회, 원산군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로작들과 명언, 회장실업과 함께 학습을 어려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조직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당조직들과 학습반단위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짜고들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피는 어머니당으로, 선현된 정도에 술을 지닌 불멸의 당으로, 명도의 성승을 확고히 보장한 전도양양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킨 시기로 험난한 일흔돌기로 당건설업적을 깊이 새겨주도록 하고 있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남흥남료련합기업소의 당시군들이 생활자체 속에서 깊이 들어가 우리 당의 위대성과 불폐의 위력에 대한 내용으로 학습담화를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다.

이과정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향일의 전통을 계승하고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새형의 혁명적당이 창건됨으로써 조선혁명은 자기의 힘있는 정치적 당을 수립되었으며 이때로부터 전정한 인민의 나라, 주체조선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더욱 절감하였다.

신의 주시당위원회를 비롯한 평안북도인의 당조직들과 회천

시당위원회를 비롯한 자강도의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지 교시 판들에게 대한 해설강의를 잘 조직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진행되는 것을 다시금 깊이 새기게 되었다.

고원군당위원회, 원산군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로작들과 명언, 회장실업과 함께 학습을 어려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조직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길주군당위원회, 함주군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강연강사, 출판물 보급원들을 잘 준비시켜 그들이 들끓는 현실에 들어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우리 당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깊이 새겨주도록 하고 있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남흥남료련합기업소의 당시군들이 생활자체 속에서 깊이 들어가 우리 당의 위대성과 불폐의 위력에 대한 내용으로 학습담화를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업적을 결집해 옹호고수하고 나가는 사업의 결과는 대고조실적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확고한 힘

장을 가지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판권전,

당정책옹위전에 불려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심도있게 벌리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업적을 결집해 옹호고수하고 나가는 사업의 결과는 대고조실적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확고한 힘

장을 가지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판권전,

당정책옹위전에 불려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심도있게 벌리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업적을 결집해 옹호고수하고 나가는 사업의 결과는 대고조실적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확고한 힘

장을 가지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판권전,

당정책옹위전에 불려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심도있게 벌리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업적을 결집해 옹호고수하고 나가는 사업의 결과는 대고조실적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확고한 힘

장을 가지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판권전,

당정책옹위전에 불려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심도있게 벌리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업적을 결집해 옹호고수하고 나가는 사업의 결과는 대고조실적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확고한 힘

장을 가지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판권전,

당정책옹위전에 불려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심도있게 벌리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업적을 결집해 옹호고수하고 나가는 사업의 결과는 대고조실적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확고한 힘

장을 가지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판권전,

당정책옹위전에 불려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심도있게 벌리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업적을 결집해 옹호고수하고 나가는 사업의 결과는 대고조실적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확고한 힘

장을 가지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판권전,

당정책옹위전에 불려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심도있게 벌리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업적을 결집해 옹호고수하고 나가는 사업의 결과는 대고조실적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확고한 힘

장을 가지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판권전,

당정책옹위전에 불려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심도있게 벌리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업적을 결집해 옹호고수하고 나가는 사업의 결과는 대고조실적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확고한 힘

장을 가지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판권전,

당정책옹위전에 불려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심도있게 벌리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업적을 결집해 옹호고수하고 나가는 사업의 결과는 대고조실적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확고한 힘

장을 가지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판권전,

당정책옹위전에 불려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심도있게 벌리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업적을 결집해 옹호고수하고 나가는 사업의 결과는 대고조실적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확고한 힘

장을 가지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판권전,

당정책옹위전에 불려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심도있게 벌리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업적을 결집해 옹호고수하고 나가는 사업의 결과는 대고조실적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확고한 힘

장을 가지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판권전,

당정책옹위전에 불려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심도있게 벌리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업적을 결집해 옹호고수하고 나가는 사업의 결과는 대고조실적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확고한 힘

장을 가지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판권전,

당정책옹위전에 불려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심도있게 벌리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업적을 결집해 옹호고수하고 나가는 사업의 결과는 대고조실적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확고한 힘

장을 가지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판권전,

당정책옹위전에 불려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심도있게 벌리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업적을 결집해 옹호고수하고 나가는 사업의 결과는 대고조실적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확고한 힘

장을 가지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판권전,

당정책옹위전에 불려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심도있게 벌리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업적을 결집해 옹호고수하고 나가는 사업의 결과는 대고조실적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확고한 힘

장을 가지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판권전,

당정책옹위전에 불려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심도있게 벌리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업적을 결집해 옹호고수하고 나가는 사업의 결과는 대고조실적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확고한 힘

장을 가지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판권전,

당정책옹위전에 불려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심도있게 벌리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업적을 결집해 옹호고수하고 나가는 사업의 결과는 대고조실적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확고한 힘

장을 가지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판권전,

당정책옹위전에 불려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심도있게 벌리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업적을 결집해 옹호고수하고 나가는 사업의 결과는 대고조실적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확고한 힘

장을 가지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판권전,

당정책옹위전에 불려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심도있게 벌리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업적을 결집해 옹호고수하고 나가는 사업의 결과는 대고조실적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확고한 힘

장을 가지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판권전,

당정책옹위전에 불려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심도있게 벌리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업적을 결집해 옹호고수하고 나가는 사업의 결과는 대고조실적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확고한 힘

장을 가지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판권전,

당정책옹위전에 불려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심도있게 벌리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업적을 결집해 옹호고수하고 나가는 사업의 결과는 대고조실적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확고한 힘

장을 가지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판권전,

당정책옹위전에 불려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심도있게 벌리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건설업적을 결집해 옹호고수하고 나가는 사업의 결과는 대고조실적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확고한 힘

장을 가지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판권전,

당정책옹위전에 불려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심도있게 벌리고

[공동구호에서]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과 혜택이 그대로 인민들에게 가닿게 하라!

우리 당의 인민 사랑의 뜻을 밟들이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헌신적 북부정신, 고결한 의리심을 암고 밭이 털도록 뛰고 또 뛰고 있는 실천가들 속에는 온성군의 약품판리소 소장 허문숙동무와 종업원들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늘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해마다 뜻깊은 태양절과 광명성절, 전승절을 맞으며 자체로 생산한 보약과 대중약물을 군안의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 부부교원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온성군의 약품판리소 소장 허문숙동무와 종업원들.

이런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들이 되기까지 그들이 바쳐온 열정과 헌신의 구슬땀은 그 열마였던가.

지금으로부터 8년전의 약품판리소장으로 임명되어온 허문숙동무의 생각은 복잡했다. 자그마한 판리소건물은 판리가 잘되지 않아 불풀이 없었고, 얼마 안되는 약품생산설비들은 오래동안 멀어있다시다 하였다.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궁금해 떠오르지 않았다.

어느 날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들어서던 허문숙동무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회주의에 국희생증을 들여다보았을 때, 판리소건물을 개건하기 위한 허문숙동무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의 해빛같은 사랑을 전해가는 긍지와 보람

온성군의 약품관리소 소장

『요즘 할아버지, 아버지생각이 더 나오나. 나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살 수 있을까요?』

얼마후이면 인민군대에 입대하게 되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허문숙동무는 무엇인가 묵직한것이 가슴을 드세게 후려치는 것만 같았다. 당시 말려준 입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글아글 노력을 하다가 순직한 시아버지와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들이 지금의 나를 본다면…

허문숙동무는 밤을 꼬박 지새우며 판리소의 건물을 개건하기 위한 도면을 그리었고 의약품생산기지를 꾸리기 위한 방도를 모색했다.

다음날 종업원들과 마주앉은 허문숙동무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군이야 짐문을 열고 마음위에 민율을 놓고 놓았던 대황, 도라지, 비롯해 서자연약 한두번 아니었다. 그런 속에서 고려약을 애스파워하기 위한 생간기지도 새로 꾸리었다.

번듯하게 일폐세운 건물들과 새와 기와, 동축기, 멀균기를 비롯하여 그간에 갖추어놓은 의약품생산설비들을 보며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힘을 새롭게 자각했다.

의약품생산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맞게 필요한 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문제를 제기되었다. 이들은 수십리 멀어진 산골짜기에 천막을 치고 수십일 하자는 마음에서 짐을 풀어놓았습니다. 허문숙동무는 그들이 서로에 맞는 목적한 배낭을 메고 밤길을 걸은적이 한두번 아니었다. 그런 속에서 고려약을 애스파워하기 위한 생간기지도 새로 꾸리었다.

치마저 고리를 흘려하게 차려입은 처녀들이 생기발랄한 아이들속에서 한껏 행복을 느끼는 내인들, 그들의 가슴속에 당시 후대사방, 미세사방을 깨끗한 향심과 아낌없는 지성으로 받들어가는 궁지가 넘쳐난다.

한명 한명 자식들이 늘어날수록 아이들의 얼굴에 그늘이 절세라며 더욱 마음쓰며 걱정도 많이 한 내인들이었으리.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애지중지 말아안았던 소장 강승란동무와 종업원들이었다.

그 나날에 그들은 부모없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빌려우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짓고 유통망을 확장하고 생일상을 차려주면서도 제 자식의 웃자람과 생일은 감각이 있은적이 많았다.

한가정의 주부로만 사는 것도

사업에 모두가 떨쳐나섰다. 이미 있던 건물을 헐어버리고 의약품생산기지를 들여 앉힐 자리까지 예전에 기초를 넓히었다. 자동차가 없으면 소달구지를 려용하면서까지 그들은 수십의 모매를 실어들이고 기서의 지혜를 합쳐가며 부족되는 자재들을 해결하였다.

제취를 할 수 없는 약초들을 재배하기 위해 약초밭을 새로 조성할 예였다.

그들이 짐을 박은 곳은 새초만이 무성한 습지대였다. 여기 사람들은 오죽했으면 몇십년을 두고도 개간하지 못했겠는가하고 하면서 산동성이나 개간하자고 제기하는 종업원들을 허문숙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약초재배기지를 조성하는 것도 다 조국에 보람이 되는 일을 한 거지라도 더 찾아

가는 마음에서 짐을 풀어놓았습니다. 허문숙동무는 밤을 꼬박 지새우며 판리소를 개건하기 위한 생간기지도 새로 꾸리었다. 번듯하게 일폐세운 건물들과 새와 기와, 동축기, 멀균기를 비롯하여 그간에 갖추어놓은 의약품생산설비들을 보며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힘을 새롭게 자각했다.

의약품생산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맞게 필요한 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문제를 제기되었다. 이들은 수십리 멀어진 산골짜기에 천막을 치고 수십일

이들의 헌신과 복무의 길은 끊임이 이어졌다. 전쟁로병들을 끌없이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이 전승 60돐을 앞두고 자기들의 성의가 깃든 고려약자들을 군안의 수백명의 전쟁로병들에게 공급해줄 이들

은 그후부터 해마다 군안의 전쟁로병들을 영예군인들은 물론 부부교원들에게도 전장에 좋은

고려약들을 보내주고 있다.

자기들이 마련한 고려약들을 받아쓰며 뜨겁게 눈물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소장 허문숙동무와 이곳 종업원들은 깊이 절하고 있다.

조국과 인민의 참된 복무자, 그것은 깨끗한 충정과 아낌없는 헌신으로 당의 해빛같은 사랑을 인민들 속에 전해 가는 실천가들을

가리키는 브루미이라고.

글 및 사진 신현규

일군의 보람

남포시 항구구역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박만식동무를

가리켜 사람들은 인민생활 문제를 두고 늘 일감을 스스로 찾는 군인이라고 존경하고 있다.

언제인가 구역의 어느 한

지구에 있는 아파트의 지붕

공사문제가 일정에 올랐을 때였다.

아직은 장마가 들려면 일

점한 기간이 있어서 사람들 속에서는 다른 일부에서 먼저

지붕공사를 해도 되었다.

일군들이 박만식동무에게 다가와 주민들에게 모두 기뻐한다고 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인민들의 기쁨 속에

우리 일군들의 보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봉사자의 기본분

울리아 할 형길에는 얼음이 깔려있었다. 함께 간던 종업원이 그에게 다가와 날씨가 좀 풀린 다음에 평을 넘는게 어떤가고 말했을 때 김희숙

동무는 머리를 저었다.

『오늘은 평길에 덮인 눈때문에 늦어지고 레일은 또 다른 조건때문에 걸음을 늦춘다면 무슨 일민을 위한 해결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고 난 그는 차에서 내려 평길에 끌려온 얼음을 깨내기 시작하였다.

종업원들은 그를 따라서며 굳게 걸어다녔다. 봉사자

의 본분을 둘로 떠나게 되었고 일군에게 디밀었을 때였다. 이제

일군은 충복

김희숙동무가 우시군상업

판리소 소장으로 일한지는

몇해밖에 되지 않는다.

그간 김희숙동무는 당시의

크나큰 믿음을 기습깊이 간

직하고 아끌타를 노력하여

맡은 일에서 적지 않은 성과

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는

만족을 몰랐다. 마음속에는

언제나 인민을 위해 봉사자

들이 있다는 판정이 확고히

서 있었다.

지난해 12월 어느 날

저녁이었다. 도의 어느 한

역에서 군안의 주민들에게

공급할 상품을 자동차에 실

고 군으로 돌아온 김희숙

동무와 종업원들이 어느 한

령에 디밀었을 때였다.

봉사자를 느낄 줄 알았던

김희숙동무는 그들이

제작한 품질을 높여주고

